

## 졸업식때 받은 ‘독행상’은 내 평생의 스승

내게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이 있다면 그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상을 받았던 일이다. 그것도 두 개씩이나. 우등상과 ‘독행상’을 받았다. 우등상이야 혼자 받은 것도 아니고, 독행상은 정말 내가 평생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상이다. 한자세대가 아니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독행(篤行)의 사전적 풀이는 ‘성실하고 친절한 행실’이다. 쉽게 말해 내 학교생활이 모범적이었다는 이유로 이런 상을 준 것이다.

과연 내가 ‘독행상’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었을까. 아마 이일규 선생님의 작품이 아닐까 짐작이 간다. 화학을 가르치셨는데 명강의로 명성이 자자했던 분이다.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니 타의 모범이 됐다며 내게 과분한 상을 주셨던 것 같다. 독행상은 내가 부고 역사상 처음 받았는데 이후에도 수상자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다.

이 선생님은 오늘의 내가 있게 만든 장본인이시다. 월사금을 못내 쫓겨날 뻔 했던 나를 구제해 주셨을 뿐 아니라 교장께 청탁을 넣어 아예 수업료 면제까지 받아내셨다. 훗날 내가 모교에 수역원을 출연해 ‘독행 장학금’을 만든 것도 이 같은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가 미국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이 선생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렵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그때는 재정보증인이 미국 영사 앞에서 예금통장을 보여주며 선서를 해야했는데 이 선생님이 서슴지 않고 영사관에 함께 가 주셨다. 그 덕분에 나는 당일 미국행 비자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내 인생의 제 2막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선 제일 먼저 찾아뵈신 분도 이 선생님이시다. 마포강이 내려다 보이는 상수동의 선생님 댁이 지금도 아련히 떠오른다. 사모님도 선생님 못지않게 나를 귀여워하며 반기셨다. “아이구, 박사님 오셨네”하며 차와 과일, 떡을 내놓으시던 사모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 칸이 찡해 온다. 보고 싶은 그 얼굴들.

미국행 비자와 함께 유학의 꿈을 이룬 내가 또 하나 얻은 게 있다. ‘씨니(Sunny)’와 순애보를 써내려갈 수 있었던 것. 지금 생각해도 여전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낀다.

‘씨니’는 내가 대학시절 가정교사를 했던 아이의 누나다. 그때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는데 나를 무척 따르고 좋아했다. 우린 그렇게 만났다. 사랑엔 국경도 없다는데 고작 나이 8년차가 무슨 대수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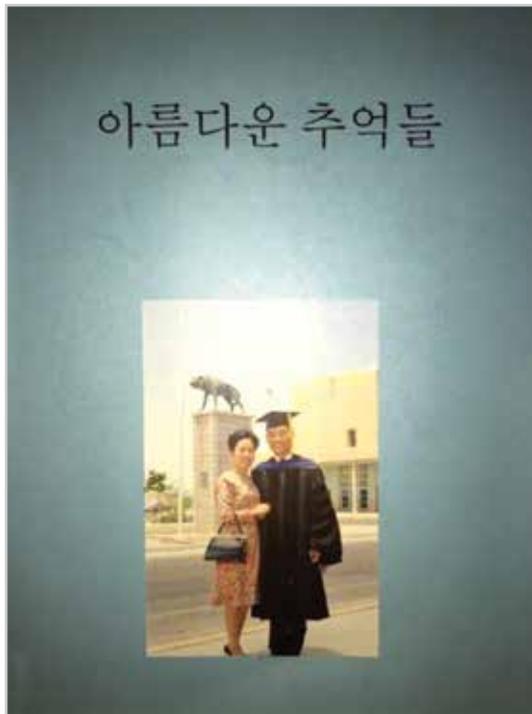
‘씨니’의 원래 이름은 정자다. 일본식이라고 해서 몇년 후 이름을 ‘혜선’으로 바꿨다. 그래서 ‘선’을 ‘씨니’라고 불렀다. 미국식으로. 언제부턴가 나도 ‘씨니’에겐 ‘덕키(Duckie)’로 불렀다. 덕을 미국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우린 처음부터 미국에 살 팔자였던 모양이다.

내가 대학원을 다닐 때 ‘씨니’는 여고 2학년. 그집 먼 친척 아저씨의 ‘밀고’로 우리 사이가 들통이 났다. 살갑게 대해줬던 ‘사모님’이 돌변했다. 장충동 부잣집의 딸과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의 아들. 어딜보나 이뤄질 수 없는 조합이었다.

장충동 출입이 금지된 나는 씨니가 보고 싶을 땐 광화문 버스 정거장에서 죽치고 기다렸다. 버스에서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버스 데이트’마저도 그

리 오래가지 못했다. “선생님을 좋아하지만 부모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여운은 남겼다. “유학 가시게 되면 한 번 연락주세요.” 이 말에 나는 유학 수속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유학길에 오르기 한 달여를 남기고 장충동 사모님의 심정에 갑자기 변화가 왔다. 이젠 어엿한 대학생이 된 씨니를 짝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가 자살소동을 벌인 것이다. 이에 놀란 사모님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자살소동 남자와 내 사진을 보여주곤 누가 사윗감으로 좋겠느냐고 물었다. 점쟁이 왈, “덕(Duckie)이 한테 시집가면 매일 업어줄 것이고 소동을 벌인 남자가 남편이 되면 평생 친정에 가서 돈 가져오라고 닥달할 사람이요.”



회고록 ‘아름다운 추억들’ 출간  
아내 뜻따라 모교에 ‘독행장학금’

## ‘씨니’와의 40여 년 순애보 답아

나는 지금도 자살 소동을 벌인 그 남자가 고맙다. 그가 약을 먹지 않았다면 장모님의 마음이 변할리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 점쟁이, 정말 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나와 씨니는 끊어질 뻔 했던 인연이 다시 이어졌다. 나는 사모님이 정말 나를 싫어하지는 않았다고 믿는다. 내 능력과 됴됨이는 맘에 들었지만 집안이 초라하고 게다가 흠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소위 ‘시집살이’ 때문에 반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앞서 찍은 사진. 왼쪽은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헬렌.

돌이켜보면 나의 미국생활은 역마살이 겠다기 보단 운명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미국과의 인연은 6.25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학생이었으나 먹고 살기 위해 미군부대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야간 경비원으로. 쥐꼬리만한 봉급이었으나 그래도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 제 44 건설공병대. 내겐 첫 직장이 미국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입대를 해서도 역시 미국과 만났다. ‘뺨’이 없는데도 옹케 미 군사고문단에 배치돼 서울에서 근무하게 된 것. 이렇게 미국과 운명적으로 만날줄이야.

유학은 미국 군함을 타고 태평양을 건넜다. 1963년 9월 15일, 나는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한다. 수송선 ‘미첼호’를 타기 위해 인천항에 간 날이다. 귀국하는 미국병사들을 싣는 군함인데 유학생들도 태워줬다. 어머님과 여동생, 그리고 씨니도 나왔는데 놀랍게도 사모님이 그 사이에 계셨다. 얼마나 반갑고 놀라왔던지. 녀죽 절이라도 하고픈 심정이었다. “고맙습니다, 장모님.”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다.

드디어 씨니가 미국에 왔다. 그 때가 1966년 9월 4일. 씨니와의 약속대로 2년 7개월 만에 학위를 땀다. 나를 성공했다고 자부하지만 내 삶의 축복은 씨니를 만나 40여 년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씨니는 지난 2002년 하늘나라로 갔다. 이듬해 아내와의 약속대로 모교인 경기여고와 이화여대에 ‘단혜선 장학금’을 만들어 기부



했다. 내 모교에도 ‘독행 장학금’을 만들어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을 돕고 있다.

지난해 두 아들(데니와 토머스)의 권유로 회고록 ‘아름다운 추억들’을 펴냈다. 쓰다보니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 됐다. 일찍이 남편을 잃고 온갖 역경을 극복하며 우리를 키워주신 어머니 구성순, 그리고 내게 참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다 먼저 간 아내 단혜선이 책의 주인공들이다.

회고록이 나온데는 아내의 간병인이었던 정명숙 여사의 공이 컸다. 내가 한글 타자를 못쳐 정 여사에게 농담조로 한글 타자를 배우시라고 하고는 잊고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후 정여사가 이젠 타자를 칠 수 있다고 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거의 10년 만에 출간이 된 데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지난 9월 초 모교의 이은숙 교장과 서미선 교사가 불쑥 집을 찾아왔다. 공항에 내리자 마자 달려왔다는 말에 몸둘 바를 몰랐다. ‘독행 장학금’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한국서 준비해 온 감사패를 안기며 두시간 넘게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다. 교장 일행이 떠나자 문득 65년 전의 일이 떠올라 가슴 한 켠이 찡해지는 걸 느꼈다.

요즘은 회고록을 영어로 옮기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영어권인 두 아들과 손주들을 위해서다. 처음엔 한 페이지 번역에도 힘이 들었는데 이젠 가속도가 붙었는지 슬슬 넘어간다. 일제 강점기와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등 격동의 시기에 아빠와 엄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의 파노라마를 후손들에게 펼쳐보이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

나는 40년 전 장만한 집에 그대로 살고 있다. 주변에선 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라고 하지만 글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 씨니의 체취가 아직 곳곳에 배어있는 것 같아서다.

- 약 력 -

1953년	서울사대 부교 졸업
1958년	서울공과대학 졸업
1966년	뉴멕시코 주립대학 공학박사
1966~1967년	모토롤라 반도체 선임연구원
1967~1969년	벨 텔레폰 연구소
1968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고문
1969~2011년	캘스테이트 풀러턴 교수

글 | 박용필(18회)